

Oct 2021. eMFORCE Report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정, 1탄
“2021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2021. 10. 29



Intro

어느덧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2022년 3월 9일)으로 다가왔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피폐해진 탓인지, 부동산 시장의 마라톤 과열 탓인지
아니면 당장 세상이 바뀔 것 같이 촛불을 들고 맞이했던, 19대 대선 이후의 첫 ‘보통’ 선거여서인지

이번 대선은 유독 어느 때보다 치열하면서, 기존의 정치적 문법으로만 해석되기 어려운 여러 **‘단서’**들을 남기고 있다.

정치 분야에는 정말 “1”도 전문성이 없는, 그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사견이지만
알량한 지식으로 가능해보자면 / 우리는 그 원인을 **“새로운 정치 소비자의 등장”**으로 귀결하고 싶다.

명명하는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중도층의 표심”이나
“20대 Z세대 유권자의 중요성”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굳이 ‘유권자’가 아닌, **‘소비자’로 정의한 이유**에는 우리만의 차별적인 견해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산출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대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명하듯 **‘여론조사’** 역시 화제의 중심에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시시각각 서너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조사들은 대중의 관심사 변화에 따라 후보 평가 항목에 새로운 잣대를 추가하기도 한다.

애초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은 **대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대략 8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시기 모두 당선 결과와 동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 조사로 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맞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 일단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영특한 소비자(응답자)**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에 우리 같은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를 상쇄할만한 다른 해법을 찾는다.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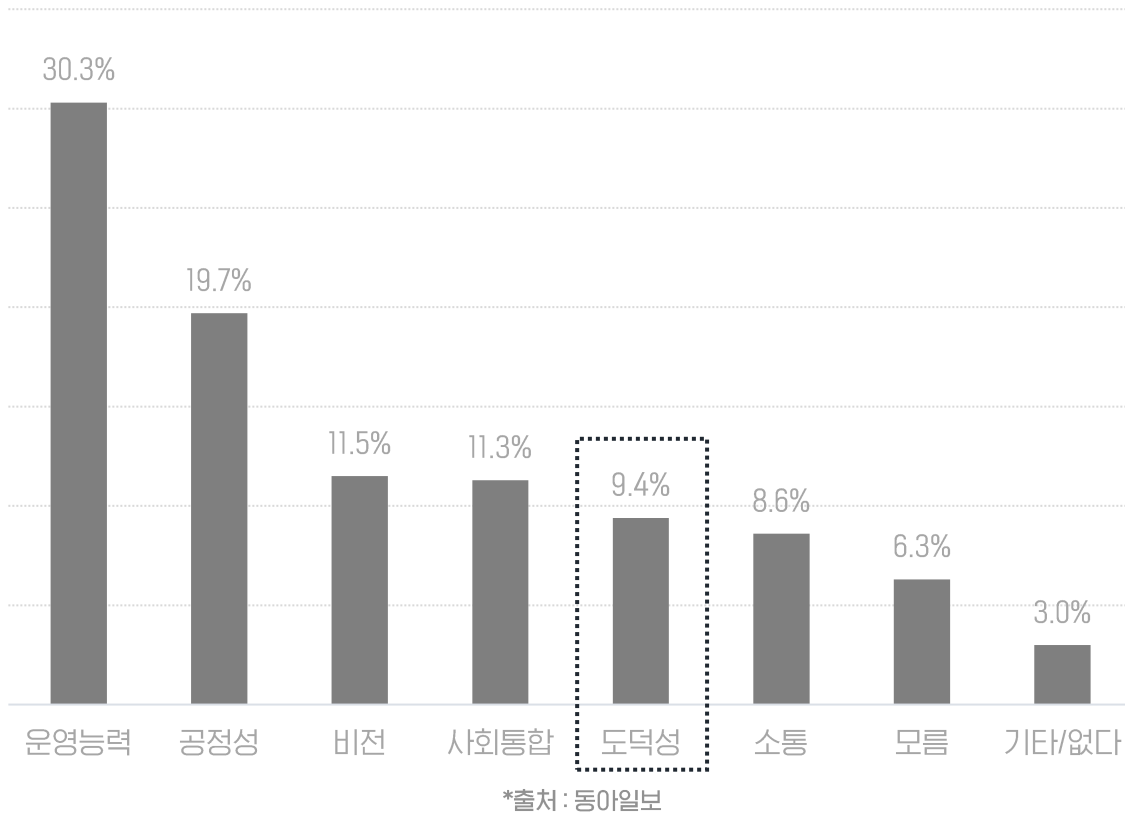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또 다른 해법을 위한 작은 시발점일 뿐이다.

어느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기존의 여론조사, 대중의 관심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치열하게 여론 탐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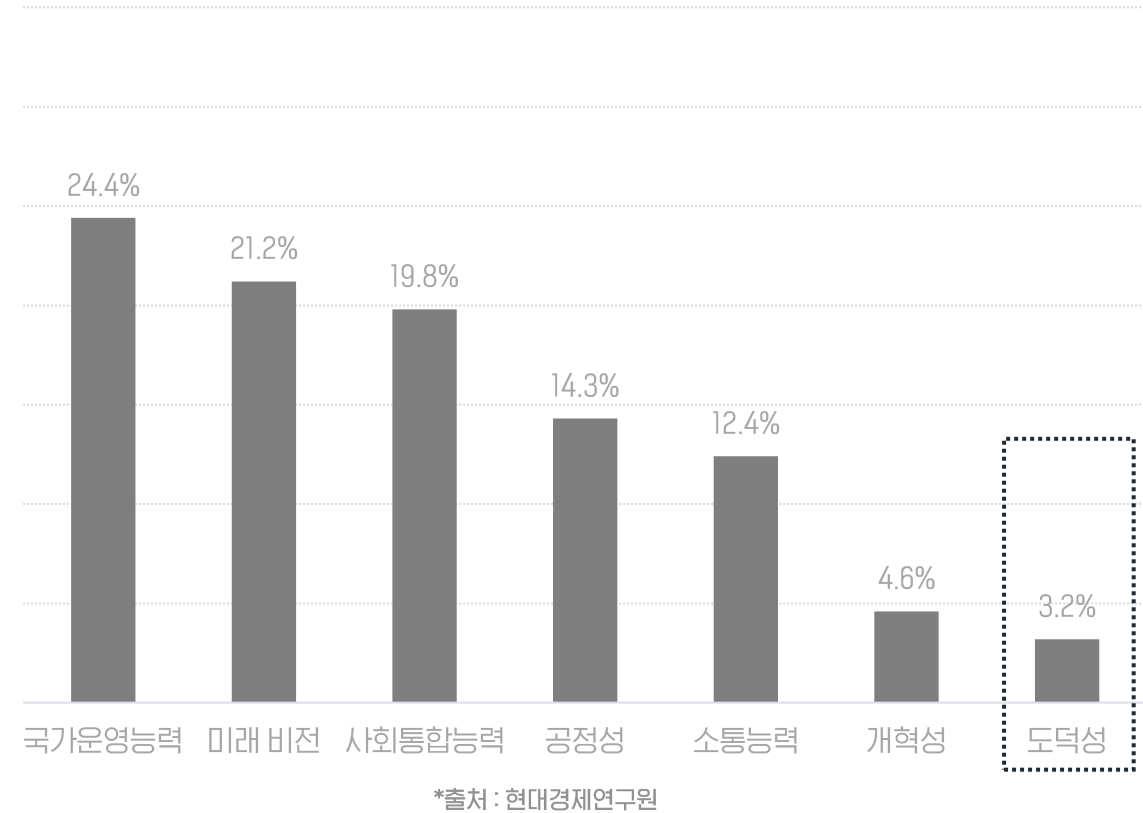
- 최근 **불거진** 여러 후보자 관련 개인 이슈로 인해 ‘도덕성’ 등 새로운 평가 지표가 등장
- 후보자의 정치성향, 정책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아마도 이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일 것

설문을 통한 조사기법,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 2021년 4월



■ 2021년 6월



“ 왜 소셜데이터인가? ”

“소비자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의 소비자에게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자신이 꾸며 놓은 환경 속에서 만큼은
마음속 깊숙이 담고 있는 걱정과 바람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의 『마켓 4.0』 중에서 -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은
우리에게 빅데이터의 **존재**를 알렸고, 향후 **활용성**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2009 ~ 2016 8년 간 미국 대통령 (44th)



빅데이터는 가장 **세밀한** 곳을
조명할 수 있는 데이터

2017 ~ 2020 4년 간 미국 대통령 (45th)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생태계를
세차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데이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의 심연(深淵)을 들여다 볼 시간.



CHAPTER.1

분석 접근 방향 및 설계

CHAPTER.2

20대 대선 후보자 평가 요소 분석

CHAPTER.3

18대, 19대와의 비교 분석

CHAPTER.1

분석 접근 방향 및 설계

- 심층 분석을 위해
소비자가 SNS에 자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탐색

Consumer Perception
Social Big Data
SNS 언급량 및 연관어 등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서
‘대선’과 관련한 언급 내용을 추출,
다양한 호감/비호감 평가와 관련된
대중의 직접적인 언급 내용에 기반하여
언급 발생량 및 직접 언급 키워드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

키워드 기반
기초 데이터 추출

대선을 중심으로 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
분류하여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추출

이상치 감지/소거
등 최대 정제

SNS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자발적
정보 외 바이럴 정보 등 최대한 소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가공

통계 기법이 반영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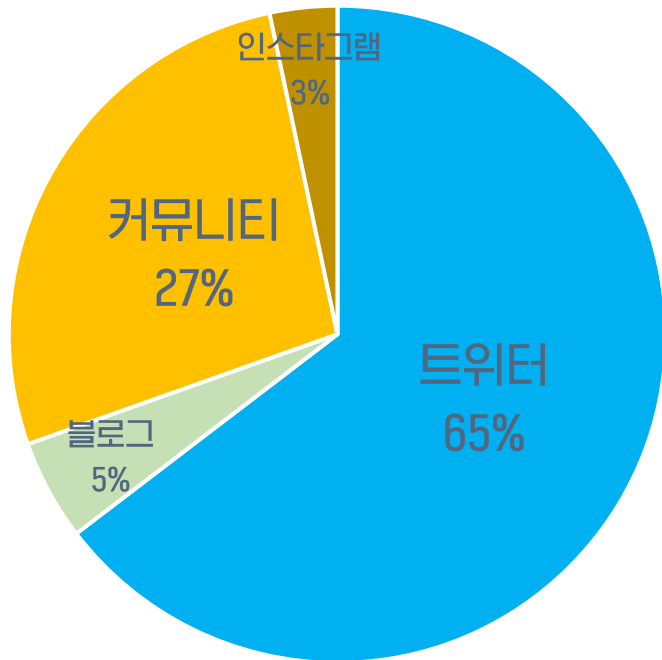
심층 분석을 통한
차트 시각화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Insight를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데이터 추출 설계

- 원문 데이터 심층 탐색 과정을 거쳐 총 129,835건의 데이터를 분석

20대 대선 유효 데이터, 채널별 비중



■ 트위터 ■ 블로그 ■ 커뮤니티 ■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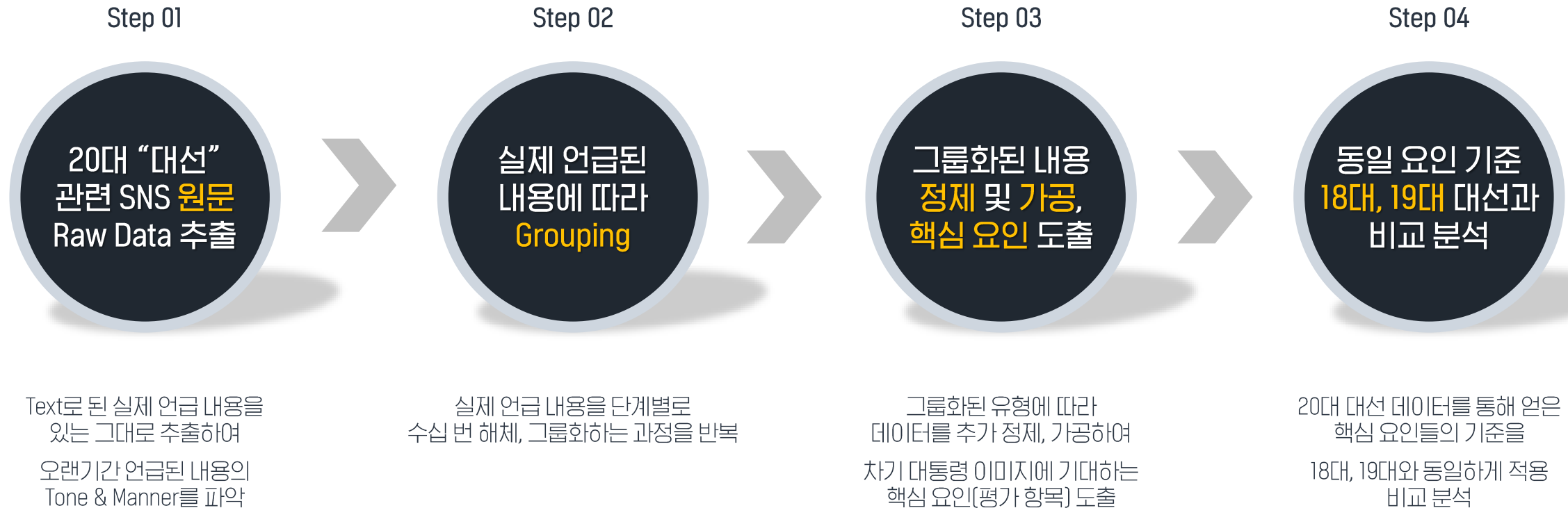
| 구분 | 설명 |
|-----------|--------------------------------------|
| 데이터 추출 규모 | 172,368건 |
| 데이터 분석 규모 | 129,835건 [추출 대비 75.3%] |
| 데이터 분석 채널 |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
| 데이터 추출 기간 | 20대 대선 : 2021. 06. 16 ~ 2021. 09. 15 |
| | 19대 대선 : 2016. 08. 16 ~ 2016. 11. 15 |
| | 18대 대선 : 2012. 03. 28 ~ 2012. 06. 27 |

- ✓ 분석 기간은 20대 대선 언급량이 증폭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3개월로 정의하였으며, 18대 및 19대 데이터 역시 20대와 동일하게 대선(D-day) **266일 전부터 175일 전 까지**로 규정

*18대 및 19대 대선 데이터는 추세를 보기 위함 이므로 별도로 정제하지 않음

데이터 초기 설계 및 분석 과정

- 18대, 19대, 20대 대선 관련 데이터에서 언급량을 토대로 화제성 및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니즈를 분석하여 **유사성 높은 요인**으로 그룹화
- 각 대선 시기별 대중들이 중요하게 고려, 평가하는 시대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민심 도출
- 단, 현재 상황은 시사각각 여론의 향방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 필요**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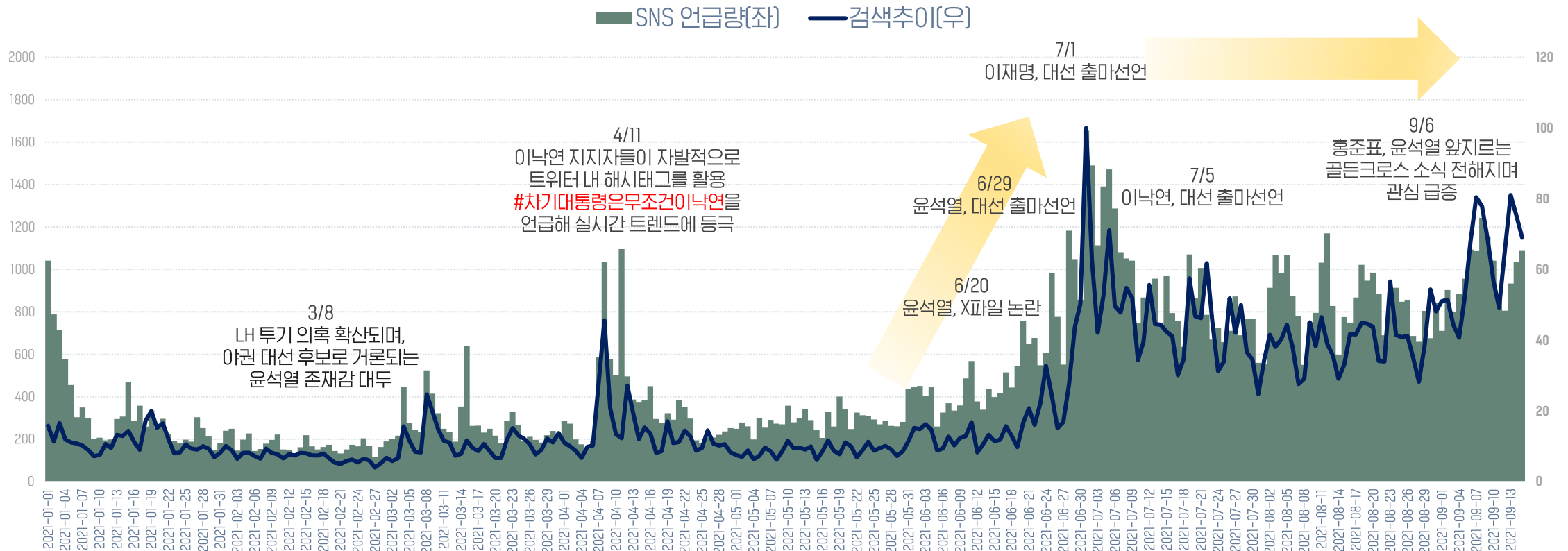
20대 대선 후보자 평가 요소 분석

2021년 대선 관련 이슈 확산 추이

6~7월부터 주요 후보들의 대선 출마가 본격화되면서 범국민적 관심 집중

- 본 데이터는 SNS상에서의 자발적 언급 추이와 네이버에서의 직접 검색 동향을 일별로 비교 분석한 내용
- 윤석열 후보의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대선에 대한 관심이 급증. 이후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며 대통령의 다양한 자질을 언급
- 초기 여론 동향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이 회자되며 민심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모습

“차기 대선”, 네이버 검색 지수 & SNS 언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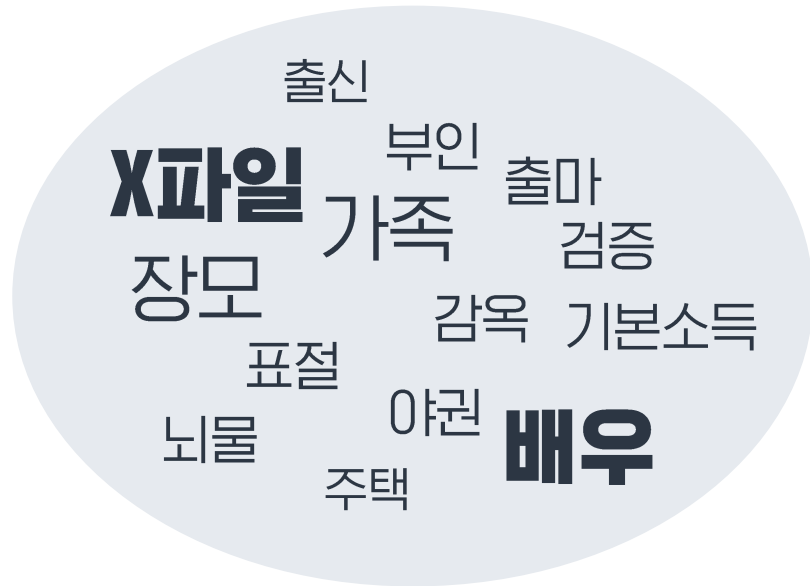
*출처 : SNS 데이터 & 네이버 검색트렌드

초기에는 부정적 이슈, 확산 단계에서는 변화 조짐 회사

- 대선 관련 언급이 급증한 초기 단계와 확산 단계에서 언급 내용의 차이가 존재
-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 후보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비판과 각 후보 지지층이 결집
-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검증하고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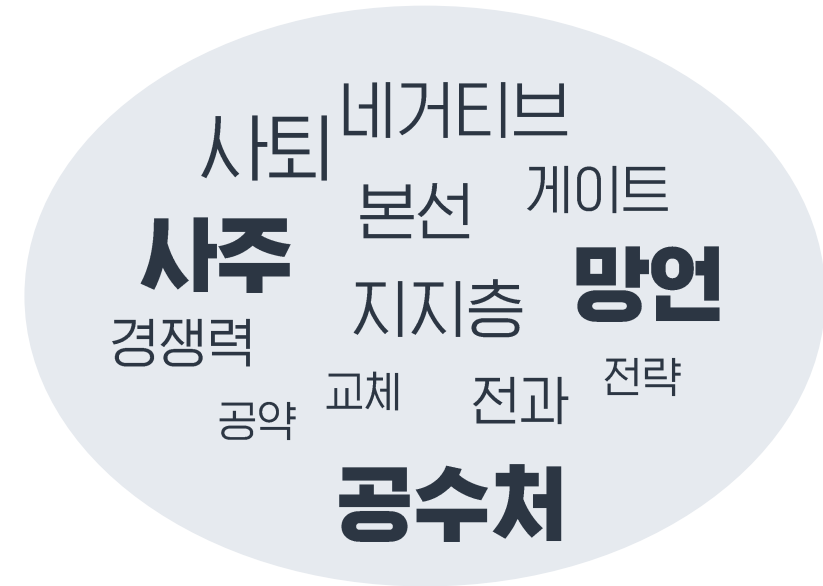
주요 연관어 변화 양상 (언급량 증가율 기준)

초기단계 (2021.6.16~2021.7.31)



후보자 본인 및 가족, 지인 등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우선 회사

확산단계 (2021.8.1~2021.9.15)



점차 구도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인물, 이슈로 전환되며 관심 증폭

여기서 잠깐!

이후부터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인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소위 **'채널 비교 분석'**을 진행할 텐데

이 기법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진단할 때** 빈번히 활용하는 것으로
채널별 언급량 규모와 추세 비교, 나아가 언급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며 진행

이 분석 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채널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소비자들의 채널별 언급 **Tone & Manner**도 달라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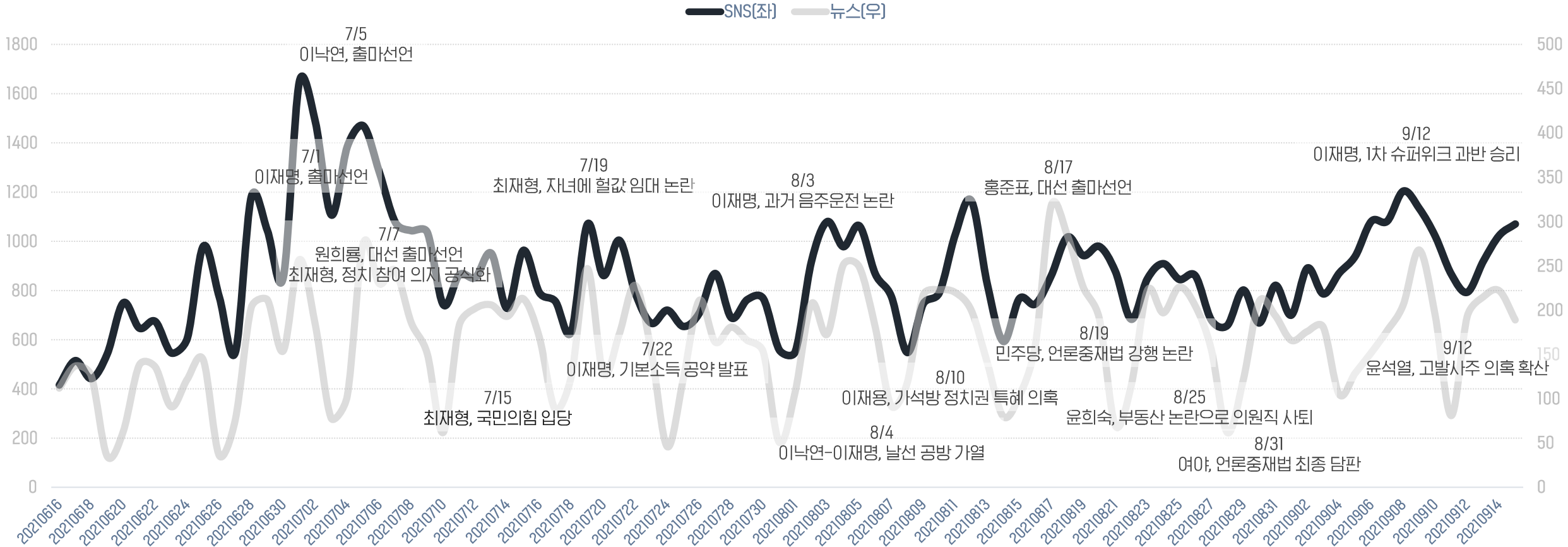
즉, **트위터**는 140자 이내로 소통해야 하는 만큼 **이슈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블로그는 장문의 글을 게시하는 만큼 **구체적인 논리와 주장을 설파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며
커뮤니티에서는 유사 관심 집단이 모여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쌍방 소통 시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인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보다
통상 패션, 인테리어, 반려시장 등 **소비 지향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

언론 보도를 쫓아가듯 회자되는 대선 이슈

- 본 분석 내용은 언론 기사에 SNS 언급량이 얼마나 비례하는지, 즉 언론 보도에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이슈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 (SNS 데이터는,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수치)
-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언론 기사와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등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언론에 민감한 주제인 영향도 있지만, **연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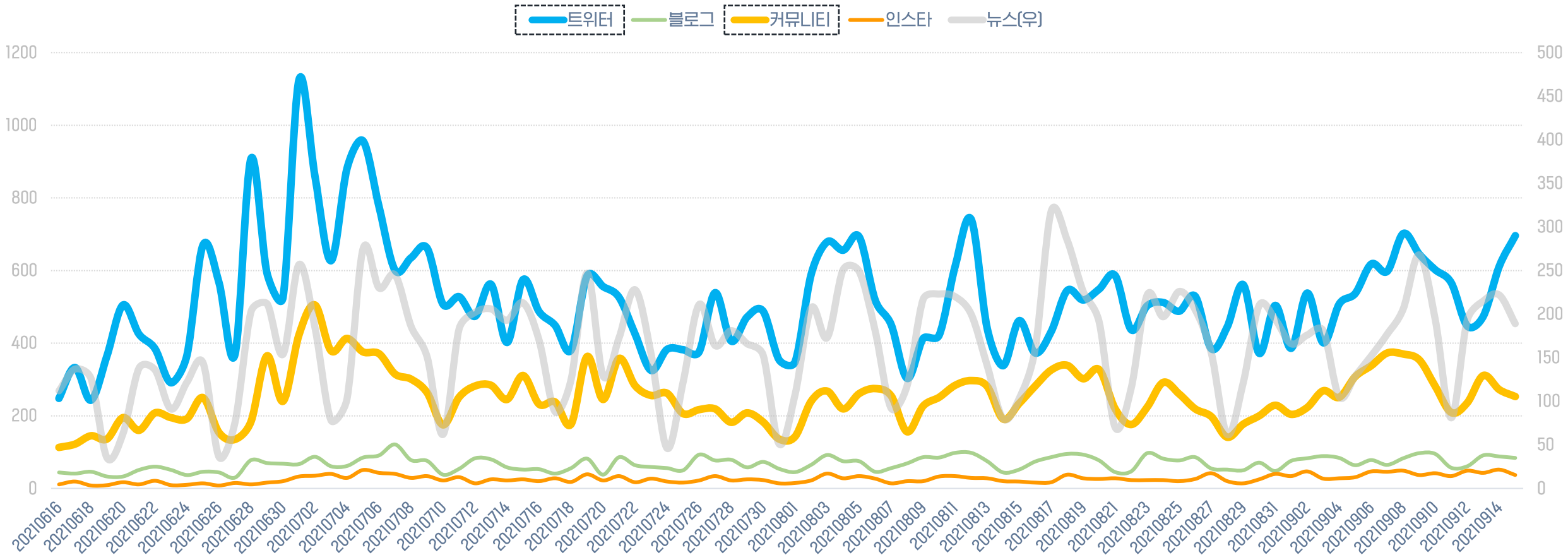
“차기 대선”, 뉴스 & SNS 언급 추이 (2021.06.16 ~ 2021.09.15)



트위터 언급량 압도적 → 너도 나도 정치 전문가 빙의!

- 주로 트위터와 커뮤니티 채널에서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데
 트위터 언급 추이의 등락 폭은 크게 일어나는 반면, 커뮤니티 언급량은 비교적 완만한 추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
 → 쉽게 얘기하면 (140자 이내로) **“짧고 굵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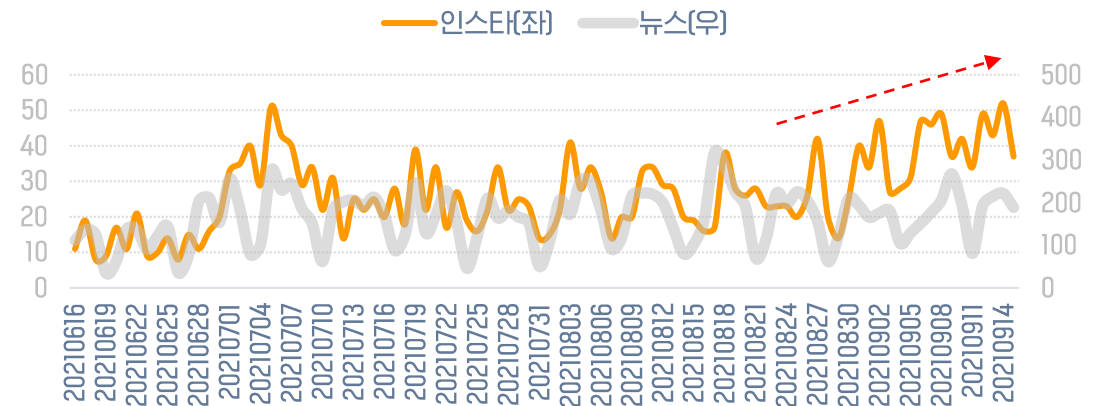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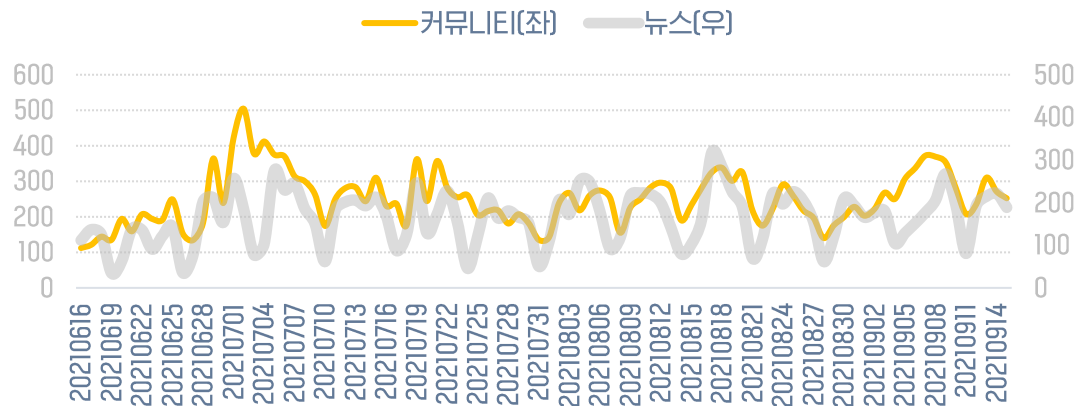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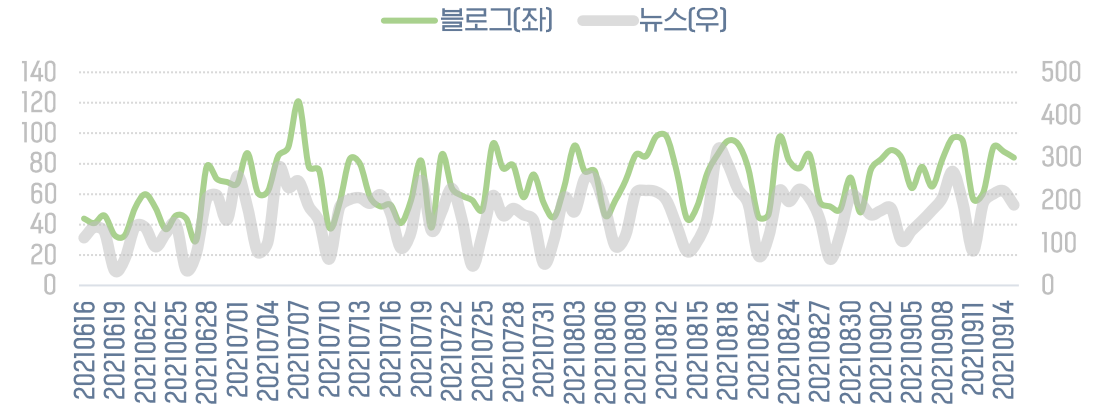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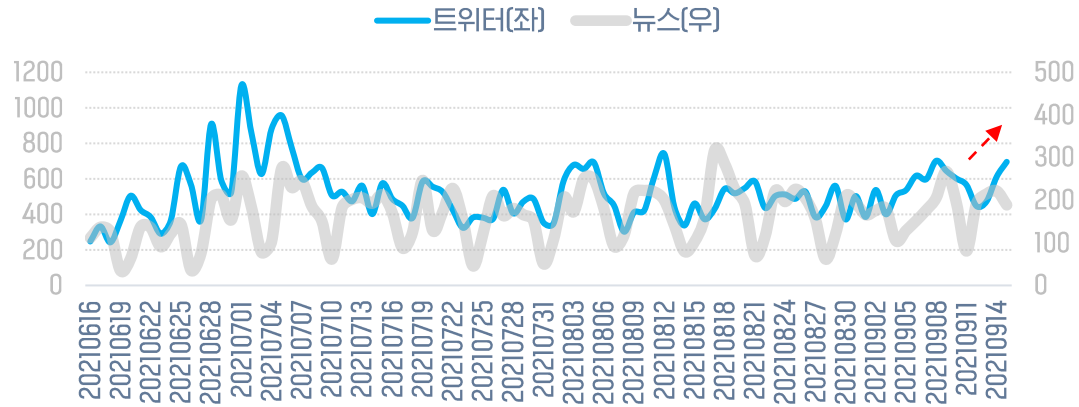
“차기 대선”, 뉴스 & SNS 채널별 언급 추이 (2021.06.16 ~ 2021.09.15)



다만, 세부 채널별로 보면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채널의 9월 이후 변화 양상이 눈에 띄는 지점

- 트위터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의 9월 중순 이후 추세는 **언론 기사의 흐름을 다소 벗어난 양상**을 보이는데 (물론, 이후 시기까지 들여다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언론 기사 정보를 단순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점차 자신만의 견해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
- 반면, 블로그 채널 정보량 추세가 상대적으로 언론 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하며 스크랩해 공유하는 게시물이 많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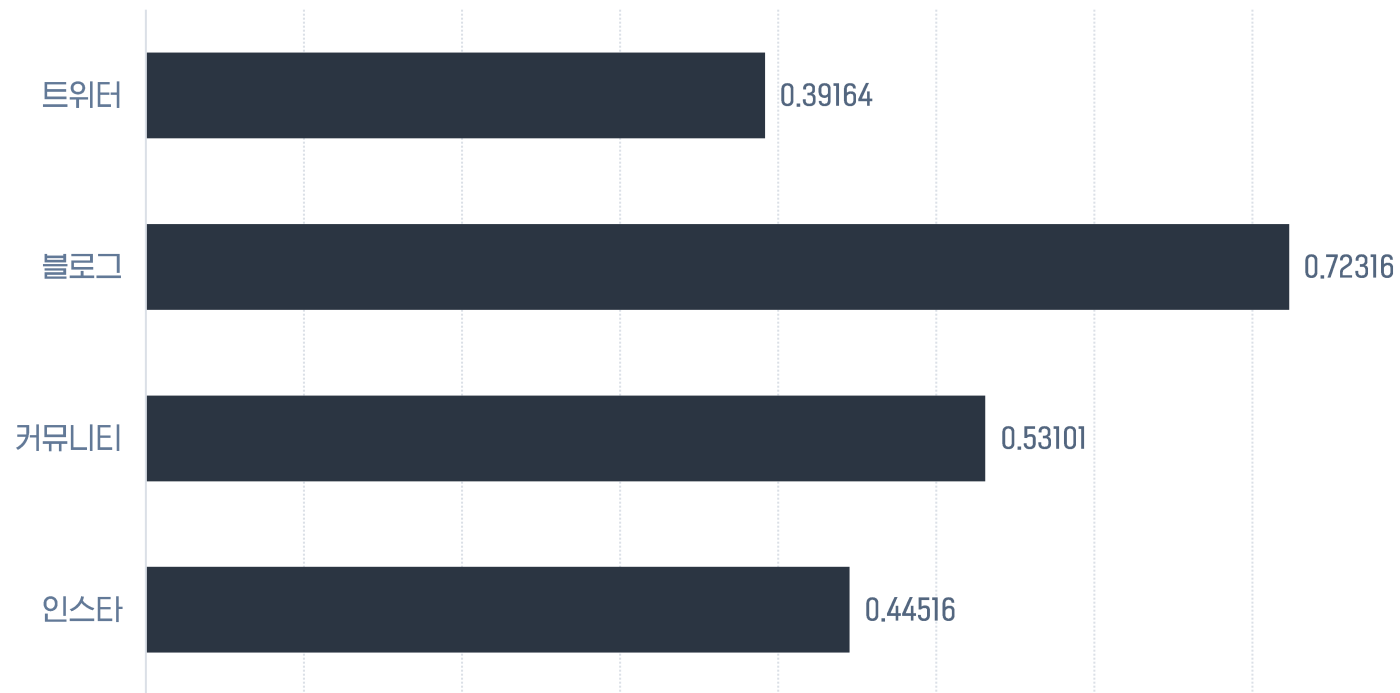
“차기 대선”, 뉴스 & 개별 SNS 언급 추이



실제 통계적인 수치(상관관계)로 채널별 언론 수용 정도를 좀 더 비교해 보면,..

- 해석 : 상관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언론 기사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는 의미
-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성향을 보일 것 같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의 반응이 낮지 않다는 것인데 인스타그램 소비층이 MZ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선 정국에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 가능**

“차기 대선”, 뉴스 정보량 대비 각 채널별 **전체** 상관계수 (추세 연관성)



정리해 보면,

초기의 언론 기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서
점차 대중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는 형국으로 진화 중이며

다만, 언론과 분리된 자발적 목소리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지 않게 느껴지는 감도 있는데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이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난해한 여러 이슈가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더욱더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

선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어진 부동의 지지율은

어쩌면 본격적인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목소리가 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평가 요소 추출에 기반이 되는
『**키워드 분석**』을 진행해 보자.

대선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인 가운데 [공약과 정책은 몰라도] 익숙한 기본소득과 부동산, 코로나는 꾸준히 화젯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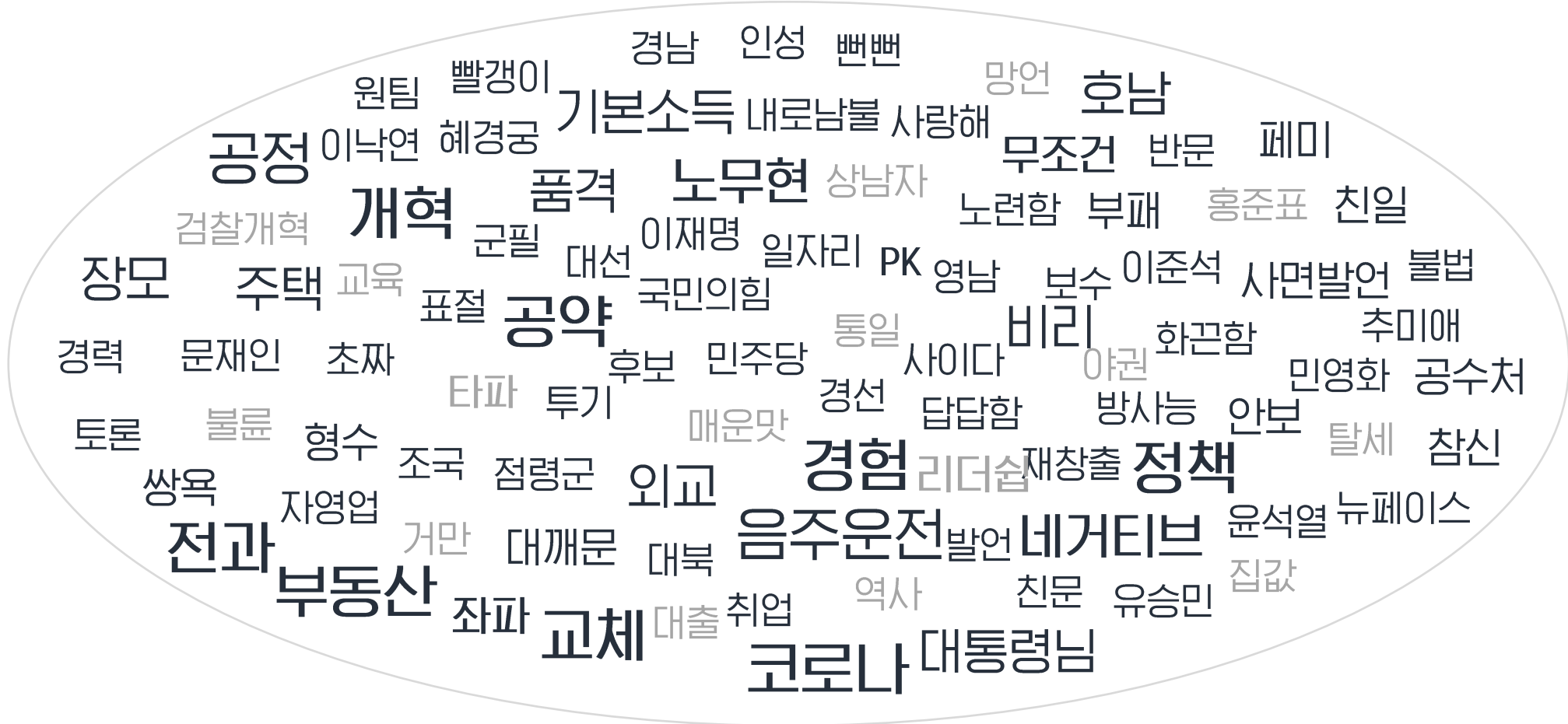
- 여당 관련 언급은 민주당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등장하고 있으나, 야당의 경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 힘을 상회하고 있어 정권교체에 대한 대안을 정당이 아닌 인물에게서 찾는 것으로 판단

*출처 : SNS 데이터



상위에 포진해있는 인물, 정당 키워드 외 이미지 평가 요소에 기반할 수 있는 별도의 **유의미한 키워드**를 포착

- 실제 키워드는 하기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음을 주의 필요



*출처 : SNS 데이터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공정성

- ✓ 불평등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분노, 공정한 가치를 해치지 않는 후보를 선택
- ✓ 공정성에 대한 각자의 추구 가치나 의미는 서로 다를 것이나 19대 대선 이후로 공정성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착하며 20대 대선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회자
- ✓ 그런데 문제는 공정의 가치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인가..

“사면을 언급한건 촛불민심과 현 정권을 부정하는 행위임
그러니 절대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서도 안되고..”

“차기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과거행적

- ✓ 과거에 저지른 잘못, 실수 등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비판
- ✓ 다만 비판이 단순 비난으로만 끝날지,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가능해 볼 문제..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에 음주전과자가 웬말 입니까? 그것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과거가 있거나 뒤탈이 있을 만한 사람은 대선에 나오면 안되죠. 누가 책임 지나요?”

불륜
형수
쌍욕
전과

음주운전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노선 FOLLOW

- ✓ 조직(정당 등)이나 개인(역대 대통령, 당 대표 등)의 방침이나 기조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행자
- ✓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유지,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등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등장하며 결국 양 진영의 주장을 위해 활용되는 정도

“제가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대선후보는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

“#문프_닭은_여니 #문프없인_못살아 #여니_없어도_못살아”

노무현

친문

대통령님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아문따정권교체

- ✓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
지금의 정부만 아니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

“정권은 일단 바꾸기는 바꾸어야해 이거 00들 빼놓고는 다 동의하는 사항 아니냐?”

“저도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지한 이유가 정권 교체에 힘쓰라고 하는거지 당대표가 같은 정당 대선후보와 공개적인 설전이 말이 됩니까?”

대개문
교체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인성/품격

- ✓ 후보자 본인의 성격, 성향, 소양에 대한 정서적 평가
- ✓ 팩트 기반의 인지적 평가라기보다는, 실언이나 거론 사건, 이미지 등에 기반

“대선도 좋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의원이면 최소한의 품격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자회견이냐 협박질이냐! 국민 겁박 서슴지 않는 조폭같은 대선후보. 창피하다~”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정치경험

- ✓ 주로 정치 경험 유무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나 사실 이번 대선은 정치 경험이 없거나 다양하지 않은 후보에게도 표심이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
- ✓ 상대 후보를 평가하는 소소한 잣대로 언급되는 경향

경력

문재인

초짜

경험

노련함

“국무회의때 경제 경험을 한 총리출신들이 경제를 잘 알고 잘할거다”

“행정에 있어서의 유능함도 아직 검증된 부분이 없기도 하고 아직 이미지는 좋지만 다양한 이슈들에 제대로된 답변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불안해지는데..”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누가 차기 대통령에 적합합니까?
게임중인데 우리 가문원들끼리 정치얘기로 싸워요,
하나는 종북 좌파 하나는 친일파라하는데 뭐가 맞는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군대 안간 사람들이 왜이리 많아!
이래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만길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이념(가치관)

- ✓ 이념 노선 및 사상 등을 중심으로 선택
-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급 내용 및 행태 기반 평가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지역주의

- ✓ 지역 특유의 연대 의식을 중심으로 선택
- ✓ 과거만큼 치열한 대립을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편 가르기의 일환

“착각하시나분데 보수 존재 기반은 그냥 경상도예요.
근데 경상도도 아닌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겠다? 대통령 낼 생각이 없다는거죠”
“당의 심장인 호남을 등지고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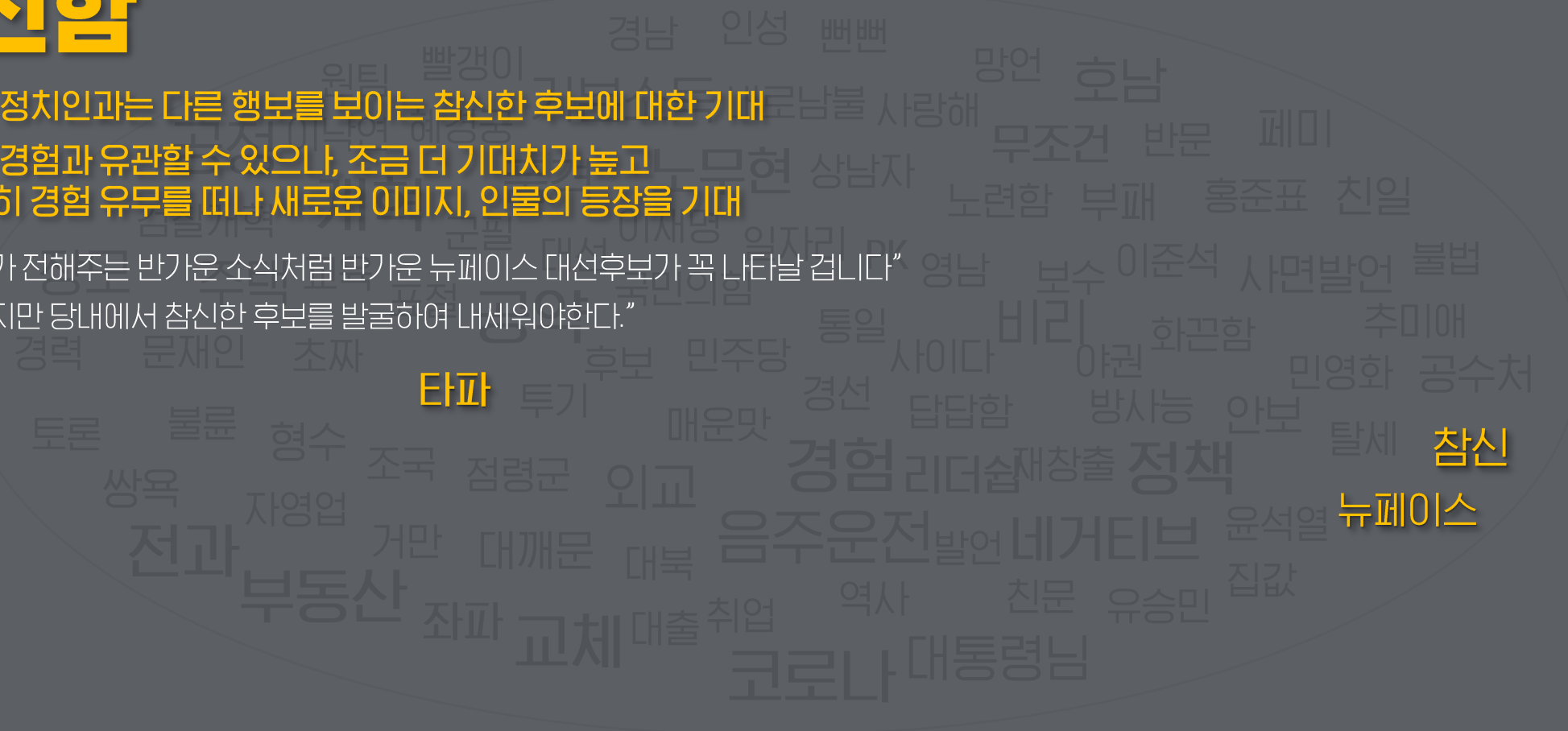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참신함

-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참신한 후보에 대한 기대
- 정치 경험과 연관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기대치가 높고 단순히 경험 유무를 떠나 새로운 이미지, 인물의 등장을 기대

“까치가 전해주는 반가운 소식처럼 반가운 뉴페이스 대선후보가 꼭 나타날 겁니다”

“늦었지만 당내에서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여 내세워야한다.”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팬심

- ✓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 웬만한 풍파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
- ✓ 팬심에 따른 무조건적인 지지 역시 예전 대비 격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SNS상에서 자발적으로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지지를 독려하는가 하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힘내세요 의원님 #000_사랑해요 차기대통령”

“예전부터 만약 다음대통령 후보로 000이 나온다면 난 무조건 000 뽑을꺼라 했었지”

- 원문에서 추출된 다양한 유효 키워드를 언급 내용, 키워드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문에 제시된 원문은 전체 하위 키워드 중 일부만을 차용

< 13가지, 대통령 후보 평가 요소 도출 >

공정성 **과거행적** **국가운영능력**
정치경험 **팬심** **인성/품격** **민생해결**
참신함 **지역주의** **아물따정권교체**
화끈함 **정치이념(가치관)**
노선 FOLLOW

민심이 원하는 대통령 자질을 13가지 요인(Factor)로 그룹화

- 통상적으로 쓰이던 키워드를 비롯해 소비자의 언어로 표현되는 키워드를 더한 상세 분류 진행
- 전통적인 미디어가 짚어주고 있는 여론조사와 공통/대비되는 민심 적극 탐색

| No. | 요인 | 비중 | 요인 설명 | 연관 키워드 |
|-----|-------------------|--------|------------------------------------------------------------|----------------------------|
| 1 | 공정성 | 17.5 % | 불평등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분노, 공정한 가치를 해치지 않는 후보를 선택 | 개혁, 부패, 불법, 비리, 사익 등 |
| 2 | 과거행적 | 10.0 % | 과거에 저지른 잘못, 실수 등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비판 | 불륜, 음주, 청렴, 전과, 쌍욕 등 |
| 3 | 국가운영능력 | 18.6 % |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선택 | 공약, 정책, 외교, 국방, 교육 등 |
| 4 | 노선FOLLOWER | 8.0 % | 조직(정당 등)이나 개인(역대 대통령, 당 대표 등)의 방침이나 기조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행자 | 노선, 친문, 친노, 배신, 재창출 등 |
| 5 | 민생해결 | 11.9 % |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선택 | 부동산, 일자리, 집값, 자영업, 코로나19 등 |
| 6 | 아물따정권교체 | 5.5 % |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 지금의 정부만 아니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 | 교체, 심판, 반문, 대깨문, 문재인당 등 |
| 7 | 인성 | 8.6 % | 후보자 본인의 성격, 성향, 소양에 대한 정서적 평가 | 네거티브, 진정성, 진중함, 인품, 품격 등 |
| 8 | 정치경험 | 3.0 % | 정치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선택 | 노련함, 경험, 커리어, 초짜, 경력 등 |
| 9 | 정치이념 | 8.5 % | 이념 노선 및 사상 등을 중심으로 선택 | 공산주의, 좌파, 우파, 페미, 왜구 등 |
| 10 | 지역주의 | 3.1 % | 지역 특유의 연대 의식을 중심으로 선택 | 호남, 영남, PK, TK, 전라도 등 |
| 11 | 참신함 | 0.2 % |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참신한 후보에 대한 기대 | 뉴페이스, 신바람, 새로운, 참신, 타파 등 |
| 12 | 팬심 | 1.3 % |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 웬만한 풍파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 | 무조건, 사랑해, 신드롬, 여니, 대세 등 |
| 13 | 화끈함 | 3.7 % | 화끈한 언행과 결단력으로 속을 시원하게 굶여주는 ‘사이다’ 후보를 선택 | 화끈함, 사이다, 추진력, 전투력, 쫓대 등 |

국가운영능력, 공정성이 가장 우위인 가운데 그 외 요소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

- 이번 대선의 특징은 물론 편차는 있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 가장 언급량이 높은 '국가운영능력'의 경우 최우선 순위이기는 하나 후보별 정책 공약이 화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변별력이 높게 작용하는 기준은 아닐 것이며 그 외 요소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 | | |
|----|-------------|-------|
| 1 | 국가운영능력 | 18.6% |
| 2 | 공정성 | 17.5% |
| 3 | 민생해결 | 11.9% |
| 4 | 과거행적 | 10.0% |
| 5 | 인성 | 8.6% |
| 6 | 정치이념(가치관) | 8.5% |
| 7 | 노선 FOLLOWER | 8.0% |
| 8 | 아물따정권교체 | 5.5% |
| 9 | 화끈함 | 3.7% |
| 10 | 지역주의 | 3.1% |
| 11 | 정치경험 | 3.0% |
| 12 | 팬심 | 1.3% |
| 13 | 참신함 | 0.2% |



용이한 해석을 위해 13가지 요인을 다시 묶어보면 5개로 압축되는데

이념과 경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반면

<능력>과 <인성> 영역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

| | | |
|----|-------------|-------|
| 1 | 국가운영능력 | 18.6% |
| 2 | 공정성 | 17.5% |
| 3 | 민생해결 | 11.9% |
| 4 | 과거행적 | 10.0% |
| 5 | 인성 | 8.6% |
| 6 | 정치이념(가치관) | 8.5% |
| 7 | 노선 FOLLOWER | 8.0% |
| 8 | 아몰따정권교체 | 5.5% |
| 9 | 화끈함 | 3.7% |
| 10 | 지역주의 | 3.1% |
| 11 | 정치경험 | 3.0% |
| 12 | 팬심 | 1.3% |
| 13 | 참신함 | 0.2% |

능력 (30.5%)

국가운영능력, 민생해결
경영 역량에 대한 평가 및 기대

인성 (22.3%)

과거행적, 인성, 화끈함
후보자 본인 및 가족에 얽힌 이야기

아몰따 (17.9%)

노선 Follower, 아몰따정권교체, 지역주의, 팬심
후보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무조건적인 지지 선언

공정성 (17.5%)

공정성
편견과 차별없이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할 것이라는 기대

이념/경험 (11.7%)

정치이념, 정치경험, 참신함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경험에 따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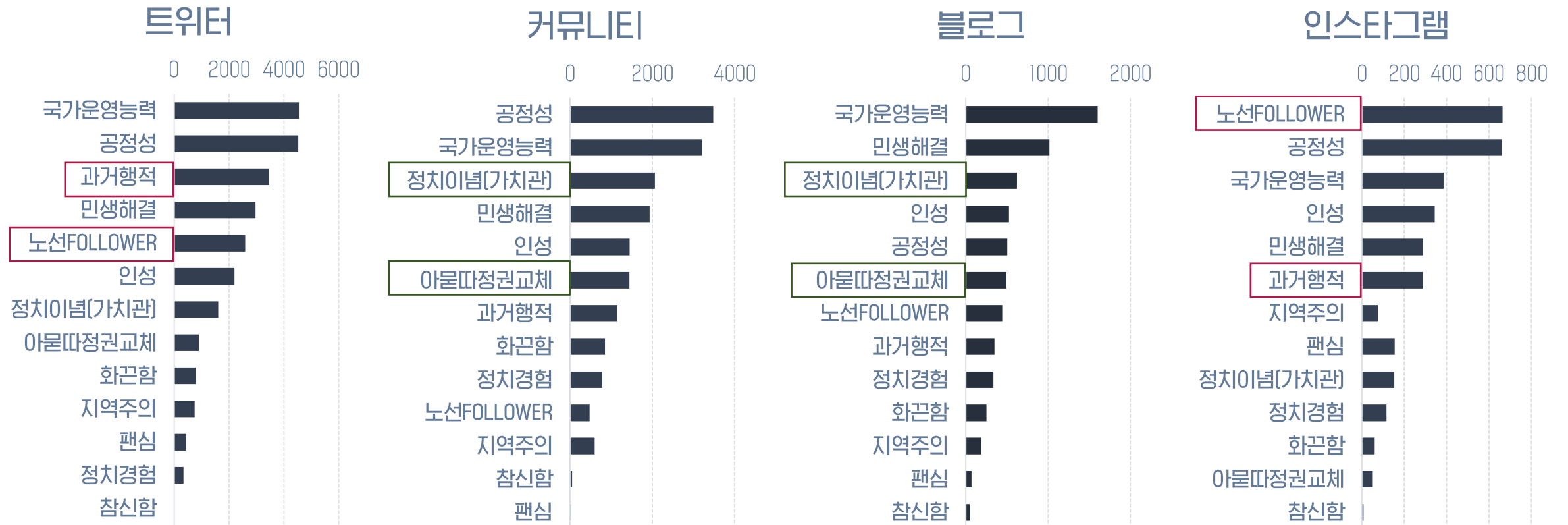
채널별로 보면

‘국가운영능력’ / ‘공정성’ / ‘민생해결’ / ‘인성’ 요소가 상위에 집계

- 짧은 메시지에 자신의 생각을 강렬하게 담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유저들은 대체로 배타적이고, 맹목적으로 추구 가치를 내세웠으며, 자발적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독려하며 결집력을 이루려 노력 → **콘크리트 지지층의 공론화를 위한 연대**
-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논리적으로 서술
다만, 커뮤니티는 즉각적인 설전이 이뤄지며 소통하는 반면 블로그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모습

채널별 핵심요소 언급량

단위: 건



CHAPTER.3

18대 및 19대와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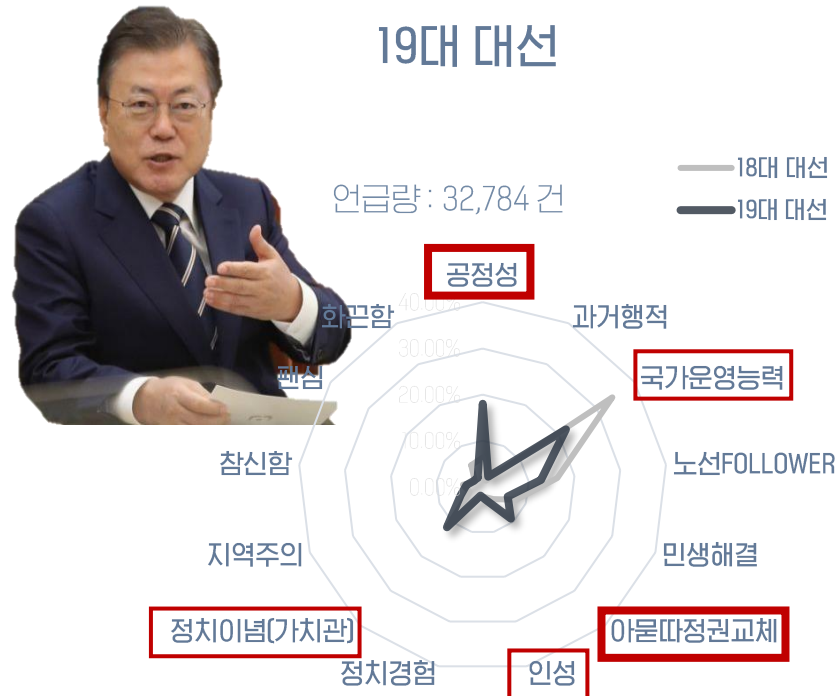
대선에 대한 유권자의 니즈가 점차 심화되며, 다양하게 분화

- 13가지의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 차별화된 가치를 탐색
- '국가운영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18대 대선에서 최근의 20대 대선으로 넘어올수록 점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새국면을 맞이

시대별 핵심요소 비교



연급량 : 53,328 건
국가운영능력, 이념



연급량 : 32,784 건
공정성, 정권교체



연급량 : 34,936 건
공정성, 민생해결, 인성

[20대 대선 이슈] 기존의 계파·진영 프레임에서 탈피한 민심

- 18대까지 이어지던 여야, 진보와 보수 등 진영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 영역이 19대, 20대를 거치면서 눈에 띄게 변화
- 20대 대선에서는 키워드 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 이념보다 개인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

18대 대선 (2012.03.28~2012.6.27)

18대 상위 연관 키워드

가능성 과학 서민 능력 **종북**
기술 경제 **친박**
공약 **보수** 전대통령 **진보**
박정희 출신 북한 민주주의
비박 선거운동 **진영**

19대 대선 (2016.08.16~2016.11.15)

18대 대비 관심 증가 키워드

사드(싸드) 국정원 **정권교체**
게이트 일베 전라도
퇴진 심판 **태극기**
친문 **촛불집회** 한미동맹
조기대선 안보 위안부

18대 대비 관심 감소 키워드

후보자 기술 경제
개혁 **정책** **공약** 징병제
복지 행복주택 반값등록금
공천헌금 역사인식
토론 무상보육 힐링캠프

20대 대선 (2021.06.16~2021.09.15)

19대 대비 관심 증가 키워드

부동산 **방역** **코로나** 공수처
정책 버락거지 **지역업자** 기본소득
최저임금 민생 검찰개혁
공공주택 **성평등** **집값** 여가부
중도층 행정고시 공약 청년

19대 대비 관심 감소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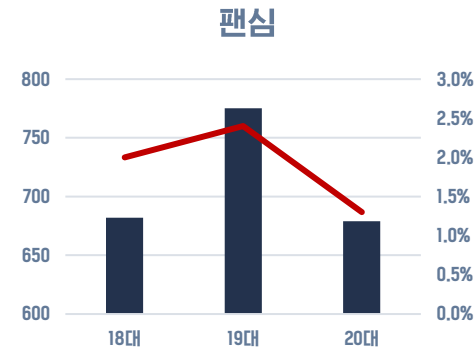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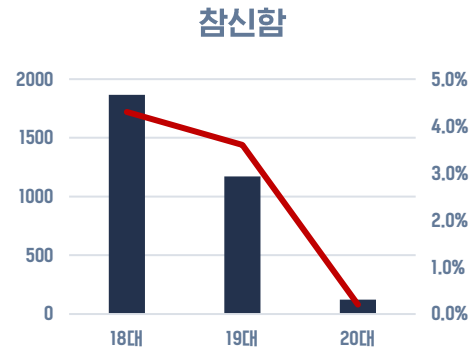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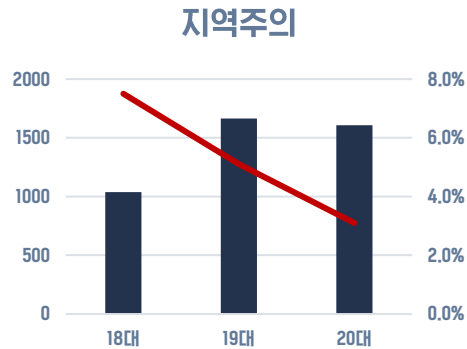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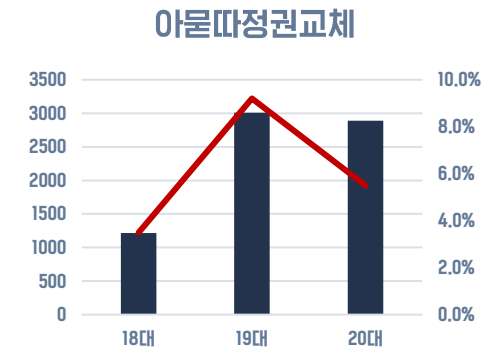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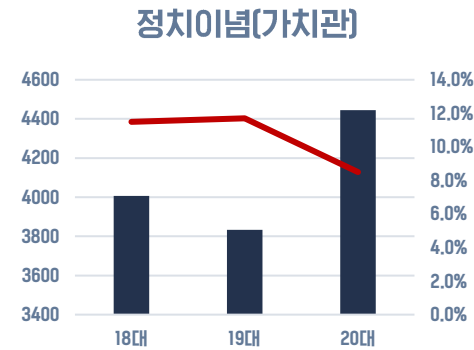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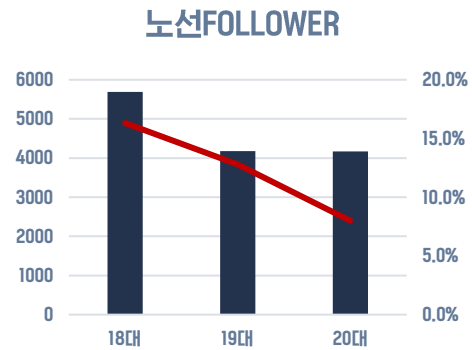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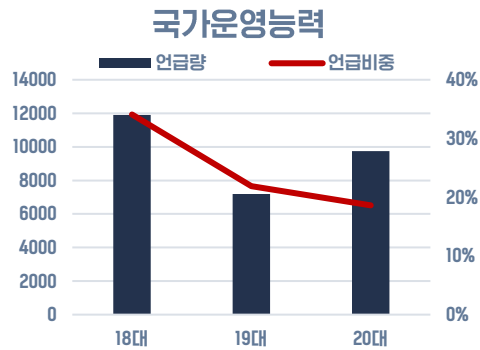
하야 통일 **집회** **정당**
삼권분립 **촛불** **퇴진** **게이트**
안기부 **탄핵** **공산당**
서명운동 **민주주의** **개헌**
북한 **진보** **보수** **패권주의** **대북**

*인물 및 특정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키워드로 선별
17대 대선 기간으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없어 18대 대선 키워드는 해당 날짜인 2012.03.28~2012.06.27 연관어로부터 추출

기존의 정치적 관념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중

- 전체 요소 중 '국가운영능력'은 3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유지되는 요소지만 추세는 점차 감소
- 아울러, '노선FOLLOWER', '정치이념(가치관)', '지역주의' 등 **역대 선거철에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진영논리가 하락세**를 걷는 모습
- 이는 코로나19 등 외적 변수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새로운 정치 참여층 유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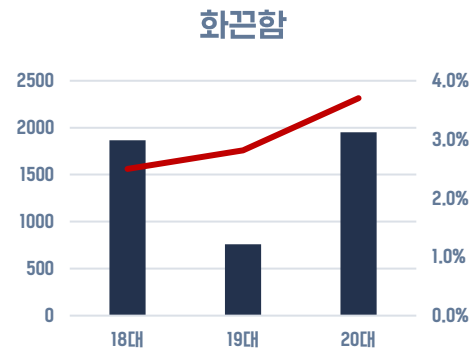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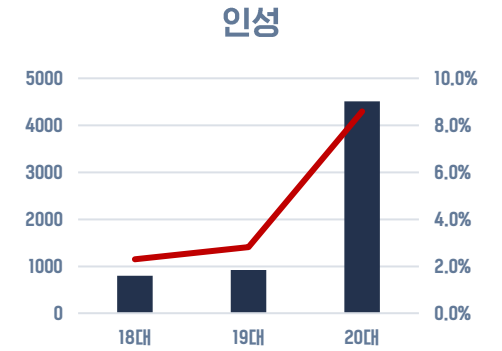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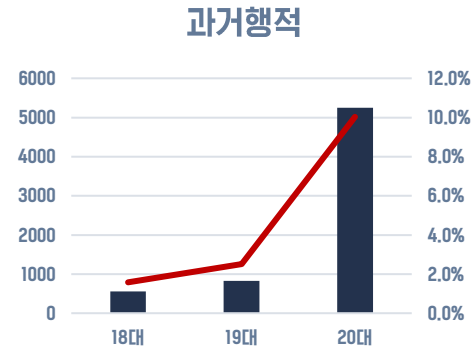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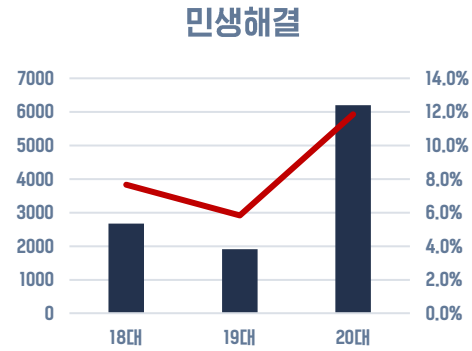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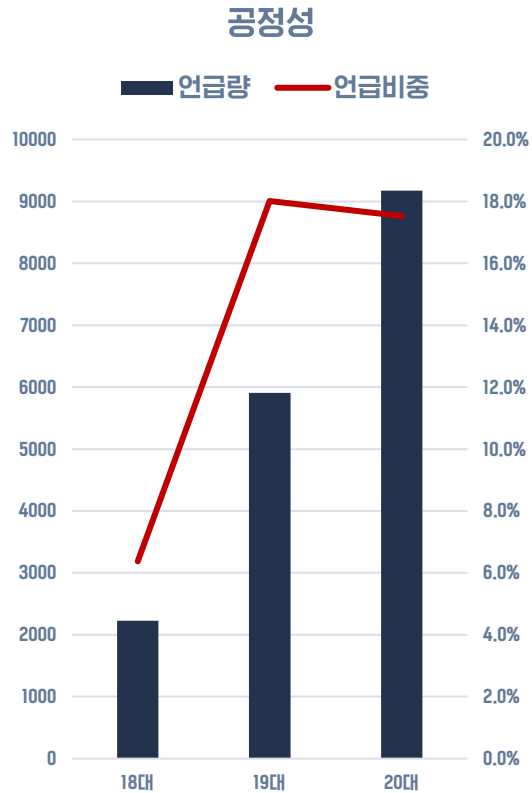
시대별 관심 감소 추세 요소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실질적 기대요소는

- ①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 구현
- ② 정당과 진영을 떠난 화끈한 추진력
- ③ 올바른 인성과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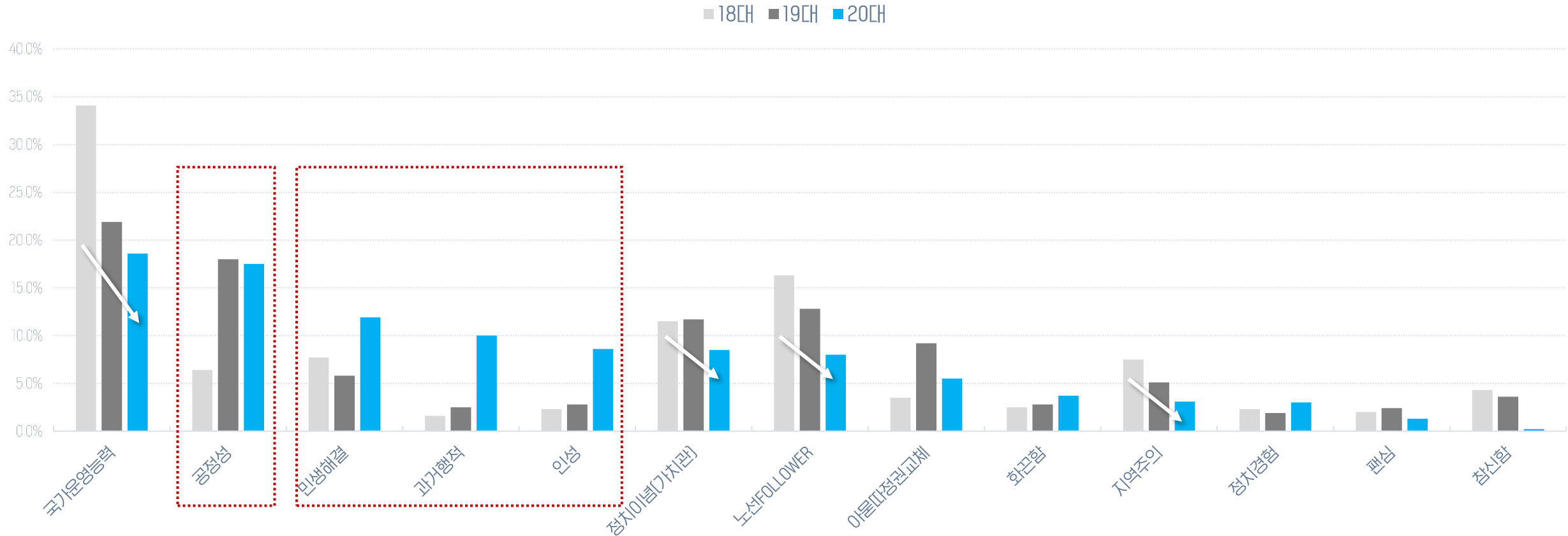
시대별 관심 증가 추세 요소



그래서 20대 대선은 **민생해결, 과거행적, 인성이** 화두

- ‘국가운영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나 점점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고, ‘정치이념’, ‘노선’, ‘지역주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통용되는 정치적 문법에서 제외되는 추세
- ‘공정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변별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며 ‘민생해결’ / ‘과거행적’ / ‘인성’은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중요한 변별 요인이 될 것

시대별 언급 비중 비교



무엇이 우리를 '공정성'으로 이끌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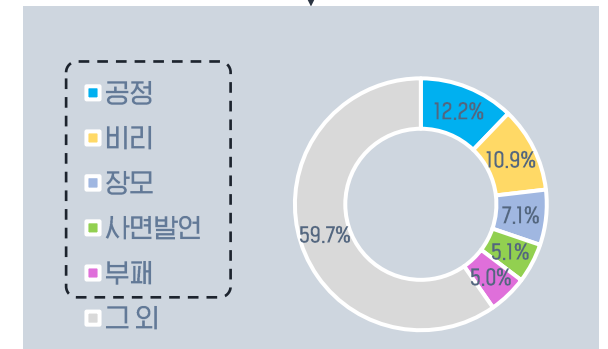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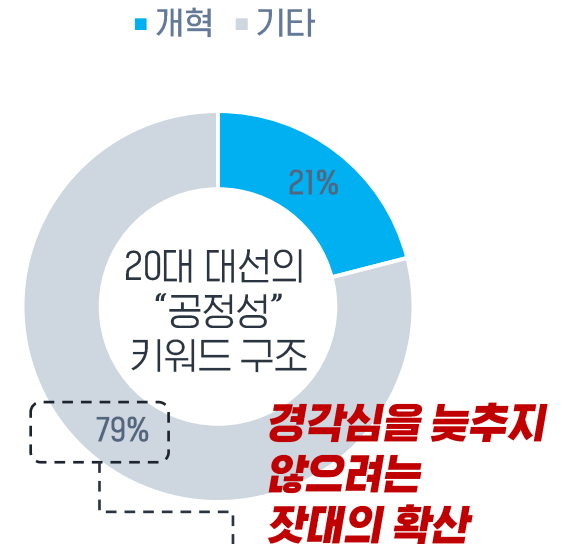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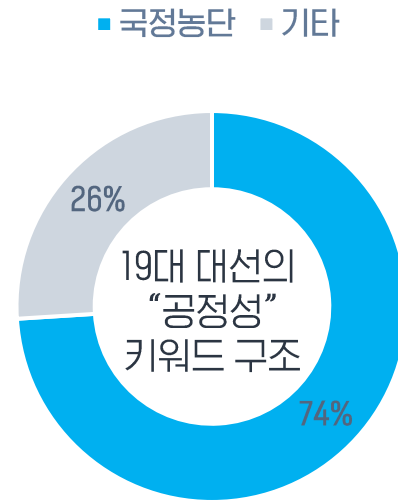
19대 대선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트라우마의 지속

- '공정성'에 대한 화두는 19대 대선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했으며, 정권교체가 된 현재에도 여전히 높은 관심으로 유지 중
- 19대 대선에서의 공정성 언급 중 다수는 '국정농단'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20대 대선에서의 공정성 관련 언급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었음을 의미
→ 과거의 경험을 토대 삼아 **조금의 경각심도 늦추지 않으려는 평가 잣대의 확산**일 것

19대 대선 언급 추이



19대 vs 20대 '공정성' 관련 키워드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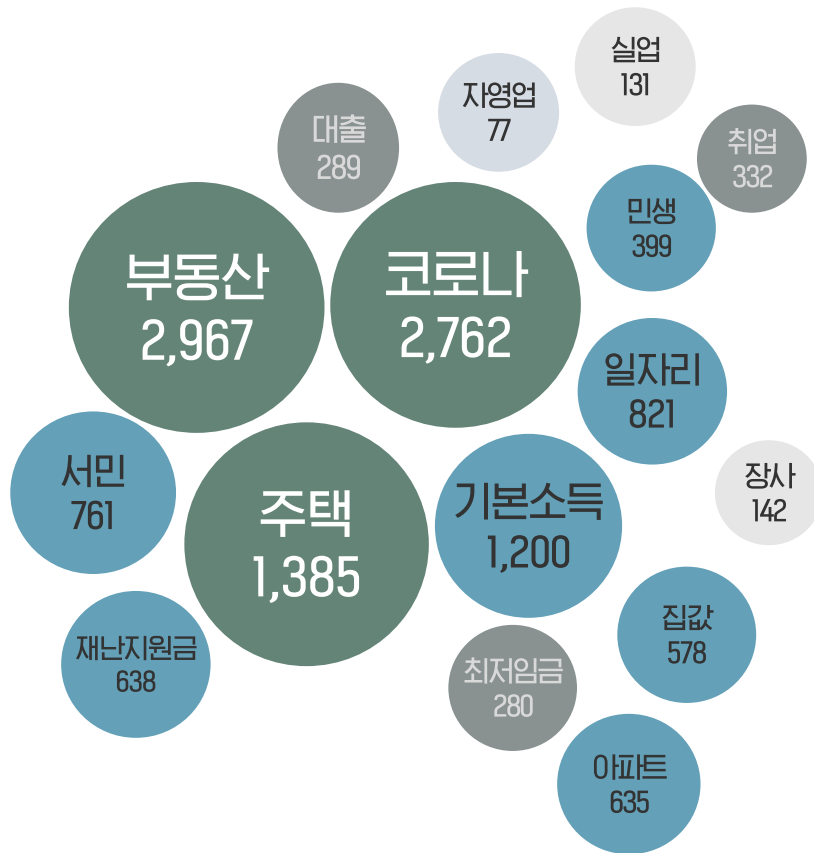


이제 우리 삶도 좀 나아져야죠..

민생해결 : 전례없는 부동산 거품과 팬데믹 현상에 '내 삶의 구원자' 탐색

- 위드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이제는 민생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러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이 크게 회자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 과거에는 선거 시점에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이력이나 경험을 가진 후보자를 지지했으나 최근에는 해결되어야 할 이슈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전이되지 않는 양상
부동산, 코로나 등의 이슈가 **현 정권의 비판적 요소는 될지라도 차기 정권의 차별적 기대 요소는 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해결 못 할..”)

20대 대선 민생해결 연관어



“부동산은 자신있게 안정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누구야?
나라의 빛을 1000조로 올려놓고 자손들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고?
아노미현상으로 모두가 붕괴되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부동산은 쳐 맞아도 싸고요.. 못하고 잘못된건 정권잡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내년, 내후년에 집값 더 미칠듯이 오른다는 건 동네 분식집 할머니까지 아는 이야기다.
이런 전세난 속에 무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미친 취급 받지”

“코로나 사멸과 종식이 최고의 대선 공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코로나 멸종시킵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득격차로 인한 2030세대들의 불만과
이들의 결혼포기로 인한 인구감소이다. 이의 해결책은 기본소득이 정답이고 대안은 없다.
대권주자 중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 사람은 000뿐이다.”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서민들이 살길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인가?”

시대별 핵심 평가 요소 요약

18대 대선

시대적 **난제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이념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활발하게 점유



국가운영능력
이념

19대 대선

모든 아젠다가 **공정성의 확보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며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



공정성
정권교체

20대 대선

공정성에 대한 요소가
새롭게 진화하면서
현실과 맞닿아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염원



공정성
민생해결
인성

Outro

지금까지 SNS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대선 관련 언급 내용을 분석해 총 13가지의 후보자 평가 요인, 즉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 요소를 정리해 보았다.

이 분류 기준들은 모두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족적에 기반했기에 결과적으로 후회나 여한은 없지만 막연하게 꿈틀거리는 불안은 남는다.

아무리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으려 애쓰며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대한민국 최대의 민감한 주제가 될 사안이기엔 누군가는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아무리 기술적인 분석 기법이 진화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연구자의 판단과 견해**라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가에 따라 충분히 또 다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존재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 기간 상 담지 못했던 10월 이후에 벌어진 각종 연루 사건이나 발언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면

우리가 도출한 13가지 평가 요인은 더 선명해졌을 수도, 반대로 희미해지거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담아낸 핵심요소들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사는 그저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민심을 조금이나마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 민심의 '골격' 즈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줬음 좋겠다.

Reference

우리는 대중이 벌이는 대사건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그것을 서술할 적절한 이론은 없다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새로운 대중은 디지털 미디어와 실제 행동의 공동 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중은 전통적인 대중보다 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더 민첩하게 실행하고, 그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날 수도 있다.

...

이런 변화된 대중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설명되고 평가될 수 있을까?

- 군터 게바우어, 스펀 뤼커의 『**새로운 대중의 탄생**』 중에서 -

E n d O f D o c u m e n t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